

윤진식 “조선·방산 규제완화·협력 강화, 美에 적극 전달”

〈무협 회장〉

무협·산업부, 5월 대미 아웃리치 예정
조선·방산 규제완화·RDP-A 촉구
원전·배터리 R&D 예산·세제지원 요청
관세 충격 최소화 위한 대응체계 마련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관세조치 확대에 대응해 업계와 함께 조선·방산 등 우리나라 주요 전략산업 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대미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협 회장,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비롯해 HD현대, 한국항공우주산업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KAI), LIG넥스원, 삼성SDI, 두산 에너지빌리티,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요 기업 및 협단체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산업연구원의 ‘트럼프2기 한·미 산업 협력을 위한 제언 및 수출 시장 확대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업종별 자유토론과 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로 인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세협상과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선 분야 규제완화 및 협력 강화 △방산 분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원전·배터리 분야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국과 동맹국 간 방위산업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정부 간 협정으로, 일방 ‘방산 FTA’로 불린다. 협정 체결 시 미국산 우선 구매

법(BAA) 적용이 면제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목소리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 중순 예정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조선·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비상수출대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호혜적인 대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난, 고객 난방비 30억 절감 성과거뒀

EERS 평가 3년 연속 우수 등급
에너지 절감 목표 초과 달성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사업 평가’에서 계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비계량 부문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고객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정부가 매년 한난, 한국 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한다.

한난은 지난해 ▲차압유량 조절밸브 보수지원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지원 ▲고온설비 보온재 교체 등 고객의 효율적·경제적 난방 사용을 위한 총 7개 EERS사업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자 중 처음으로 정부가 설정한 절감목표인 2만3975Gcal(기가칼로리)를 초과한 2만5184Gcal을 달성, 약 30억원 상당의 고객 난방비를 절감했다.

한난은 아울러 고객친화적 사업 진행을 위해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금 상향, 지원 대상 확대, 찾아가는 홍보 1대1 컨설팅 등을 시행했으며, 임대아파트를 사업대상자로 포함해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평가에 포함

되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난은 올해 이같은 ‘고객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을 고객이 쉽게 기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부담부담 ↓ 따뜻↑, 한난 효율+’로 명명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3년 연속 EERS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후 지역난방 설비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술이전·금융지원 통합 플랫폼 마련

환경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환경부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환경 연구개발(R&D) 기술이전-금융지원 연계 기술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동시에, 금융지원까지 연계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중소기업과새싹기업(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협업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9개 기술보유 기관이 참가해 총 8건의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아울러 57건의 출품 기술에 대한 상담창구도 운영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 간 활발한 교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서 소개된 기술은 ▲토양오염도 진단용 미생물-대사체 분석 기술(한

국과학기술 연구원) ▲재활용 페트(PE T)의 고순도 해중합 촉매 기술(한국화학연구원) ▲장시간 효과 지속 및 세균 번식 막는 항균·방오 코팅 소재(한국화학연구원) ▲잔티노박테리움 균주 및 비올라세린 이용 모발건강유지·탈모증상 완화 기술(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다.

기술이전 절차에 관심 있는 기업은 연구자 및 기술거래기관과 상담을 통해 기술평가, 협상, 계약 등의 실질적인 이전을 모색할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지원 절차를 소개했다.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맞춤형 상담 등도 마련됐다.

서영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한 환경기술이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녹색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정책, 금융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통계청

마늘·양파 재배면적 감소

쌀보리·밀 등 타작물 전환 영향

올해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타작물 전환은 증가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2942ha(헥타르)로 1년 전보다 1.5%(347ha) 감소했다.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산지 가격, 생산 비용 등 영향을 받는데, 마늘값 하락 등이 영향을 줬다.

특히 전남(-16.0%)과 제주(-24.3%) 지역에서 재배면적 감소폭이 컸다. 다른 작물로 전환한 경우가 늘어났다.

양파는 2023년보다 지난해 가격이 좋았으나 기후 여건이 좋지 않아 파종시기 지연되는 등 생육에 어려움을 겪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남과 제주 지역 마늘·양파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했다”며 “제주에서는 당근으로, 전남에서는 봄배추와 쌀보리, 밀 등 다른 작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재해율 0’, 안전경영 입증

석유공사, 안전관리 심사서 최고 등급
안전리더십·문화개선 전사적 역량 강화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서 사실상 최고 등급인 2등급을 획득하며, 공사의 안전 최우선 경영 철학이 탄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해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72개 공공기관이 심사를 받은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석유공사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은 셈이다.

석유공사는 기관장의 ‘안전 최우선’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 전담 조직인 ‘SHE 추진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을 강화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해율 제로(0)’ 목표 설정 ▲안전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안전 문화 진단과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전사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현장안전경영의 일환으로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해 원유입출하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석유공사

적 안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또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8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상대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P등급)을 유지하며 현장 안전성 강화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투명경영 입증… aT, 3년 연속 공시 ‘무벌점’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3년 연속 무벌점 기록을 냈다. 29일 aT에 따르면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무이한 성적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주관 점검에서 ‘우수공시기관’에 선정됐다.

통합공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연 3회 통합공시를 점검해 불성실 공시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한 기관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한다.

aT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무벌점 공시를 이어 왔다. 2024년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전체 310개 공공기관 중 14곳만이 선정된 우수공시기관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지난 2022년 기재부가 선정 기준을 개편한 이래로 농식품부 산하기관 중 aT가 유일한 사례를 남겼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가점검 시스템 강화 ▲오류사례 학습을 통한 공시역량 내실화 ▲담당자 소통 확대를 통한 정확성 제고 등에 힘쓴 결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인정받았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대한 임직원 모두의 책임 의식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